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신문기사 분석 Analysis of Newspaper on 2014 Incheon Asian Games

김진희*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창조산업연구소

Kim jin-hee*

Andong National Univ. Research Center for Creative Industry*

요약

본 논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신문기사 내용을 사례로 한국 사회에 스포츠 메가 이벤트 개최에 내재된 스포츠 도시에 대한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I. 서론

‘스포츠’를 테마로 한 도시 브랜딩이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도시를 경쟁적으로 선언하면서, 축구 타운, 고원 스포츠도시, 야구도시 등 스포츠를 도시 마케팅으로 선정하지 않은 도시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시적으로는 4대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 국가라는 명분에 걸맞게 스포츠 도시를 도시 발전을 위한 동력원으로 활용하고 있다¹⁾.

그러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개발된 알펜시아의 파산, 전남 무안의 F1 그랑프리 대회 취소, 서남해안 스포츠레저도시 조성사업인 J 프로젝트의 대규모 적자구조, 태백시 오투 리조트 실패 등은 최근 막을 내린 인천 아시안게임과 함께 스포츠 도시화의 실패와 그로인한 도시의 재정 낭비 및 부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및 경기장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연쇄적인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심각한 것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내거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효과’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자”, ‘경제효과 0조원’, ‘국고지원’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경제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 아시안 게임은 45개국 13,000명이 참가한 아시아 대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였다. 2조 5천억 예산중 약 2조원을 경기장 건립과 인프라 구축 등 SOC 산업에 투자하였으며, 이를 위해 인천시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했고, 현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³⁾.

스포츠라는 테마 그 자체가 성공적인 도시발전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스포츠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들의 수에 비해 성공하는 도시의 사례가 적은 데 왜 스포츠 시티 노믹스 현상은 지속가능한 사례로 회자되고 있는가?

본 논문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의 사례를 바탕으로 스포츠 도시(화)에 대한 전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기록되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분석하여 국제스포츠이벤트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논의하는 데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5종의 주요 신문(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각 신문사 포털에서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키워드로 대회기간인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의 기사를 검색하여 내용분석 하였다. 내용분석은 보도되는 기사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분석방법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위해 기사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보도기사와 함께 제시된 사진이나 이미지는 제외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기사비중과 보도유형

대회기간 동안 보도된 기사 중 분석목적에 사용된 기사는 총 821개였다. 매체별로는 조선일보 237개(28.9%), 동아일보 214개(26.1%), 경향신문 142개(17.3%), 한겨레 122개(14.9%), 중앙일보 106개(12.9%)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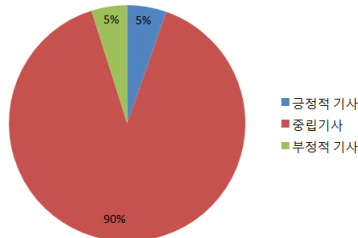
보도면을 살펴보면, 스포츠면에 게재된 기사가 가장 많은 563개(68.6%)였으며, 종합면은 169개(20.6%)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면은 메달획득과 관련한 내용이나 북

한관련 기사가 많았다.

표 1. 인천아시안게임 기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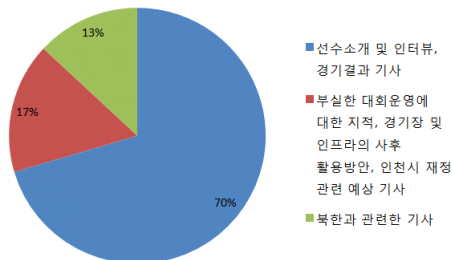
신문	기사수 (N)	%
조선	237	28.9
동아	214	26.1
경향	142	17.2
한겨레	122	14.9
중앙	106	12.9
합계	821	100

보도유형으로는 600개(73.1%)가 스트레이트 기사였으며, 피쳐기사는 179개(21.8%)였다. 지사의 내용과 방향을 가늠하는 논조를 살펴보면 보도유형에서 다수를 차지한 스트레이트 기사의 결과는 중립기사가 736개(89.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한 긍정적 기사는 44개(5.4%), 부정적 기사는 40개(4.9%)로 나타났다.



▶▶ 그림 1. 신문기사 논조

기사주제를 살펴보면, 선수소개 및 인터뷰 등 경기결과 기사가 436개(51.3%)였으며, 그 외 부실한 대회운영에 대한 지적, 경기장 및 인프라의 사후 활용방안, 인천시 재정 관련 예상 기사들이 102개(12.4%)로 나타났다. 대회기간 북한과 관련한 기사들이 81개(9.9%)를 차지하였으며 주로 선수단 소개, 국기계양 문제, 고위급 인사들의 폐막식 참관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 그림 2. 기사 주제

기사정보원과 관련한 부분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선

수와 감독 등 경기관련 주제들을 통한 기사인용이 주를 이루었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 각종목별 협회의 의견을 인용한 기사가 52개(6.3%)로 나타났다.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인천시의 의견을 반영한 기사들은 그 주제에 대체적으로 대회운영이나 주경기장을 포함한 17개의 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 및 인천시 부채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말을 인용한 기사의 경우, 북한과 관련한 기사에 인용되었다. 인천시의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인천시의 입장이 차이를 보인 기사가 특이하였다.

다섯 곳의 신문기사 보도로 살펴본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은 45억 아시아인의 평화 축제, 국제스포츠이벤트라는 명성과 맞지 않게 보도 결과는 국내에서 치러지는 스포츠 이벤트 혹은 지역의 한 대회 운영으로 보는 기사의 축소 및 불분명한 입장, 간접적인 인용 보도 등의 내용이 많았다.

본 연구는 약 2주간의 인천아시안게임 대회기간 동안 보도된 기사를 내용분석 하였으므로, 아시안 게임이 국제스포츠이벤트로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대회의 전반적인 기사보도의 행태를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주요 신문기사가 다루고 있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어떤 보도의 관점과 방향을 가지고 내용을 다루었는지 기술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참고 문헌

- [1] 안정찬·김매이·한진욱, “스포츠도시 개념의 재고찰: 스포츠와 도시마케팅의 관계성과 시너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5권, 제18호, pp. 75-93, 2013.
- [2] 정희준·김무진, “육망과 콤플렉스: 신자유주의시대의 도시문화정치와 스포츠”, 한국체육학회지, 제55호, pp. 83-92, 2014.
- [3] 인천광역시 재정공시자료 2014. 8.